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떤 인연

어떤 인연 하나 옮겨 와야겠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까마득한 전전생(前前生)의 급장선거 이야기다.

1학년 때는 급장 희망자 중 목소리가 가장 우렁차 담임선생님 선택으로 급장이 되었다. 2·3학년 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소감 발표도 한 후 급우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급장이었다. 그러나 4학년 때의 급장 선거에서는 몇 표 차이로 떨어지게 된다. 방앗간집의 종철이에게 학급대표인 급장 자리를 넘기게 된다. 사연은 간단치 않지만 줄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우리 반 여학생 중에 '길자'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또래에 비해 키가 크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다. 하얀 운동화를 즐겨 신을 만큼 집안 형편도 넉넉한 우체국장 집 아이였다. 그 아이는 덧니를 두 개나 달고 있었는데 심술단지인 나는 급장이면서도 품위를 잃고 칠판에 '쌍 뻐드렁니 드라큘라'라고 큰 글자로 써버렸다.

어느 날 체육시간에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는데 치켜 올라간 속옷 사이로 나의 볼록 솟아 있는 배꼽이 길자의 눈에 발각 되었던 것이다. 돌아온 교실의 칠판에 '똥배꼽, 똥고집, 똥반장은 물러나라'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다. '길자 년'의 짓이었다. 하여, 쌍 뻐드렁니는 은밀하게 반란표를 모아 똥배꼽에게 처절한 아픔을 안겨준다. 덧니를 뻐드렁니로 그것도 쌍 뻐드렁니로 부른 게 애당초 잘못이었다.

편지봉투 안에는 5만원짜리 지폐 두 장이 담겨 있었고 편지 겉봉투에 쓰인 글씨도 할머니 필체로 설레는 호흡처럼 고르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으며 마음이 잠시 먹먹했지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짝사랑한 사람은 또래의 여학생이 아닌 예배당의 주일학교 여선생님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 '문희'라는 여배우였는데요. 아무튼 어린 시절, 여자아이들 이름을 글에 옮길 땐 고운 말, 예쁜 말만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은경인지, 광숙인지, 길자인지, 또 다른 딸 아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2014년 2월 3일 블로그에 올린 글)

2016년 동지 다음 날에 사자암에는 눈발이 세찬 바람과 함께 날리고 있었다. 40대 초반의 부부가 찾아왔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며 찾아온 경위를 설명했다. 그들 부부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나의 글에 가끔씩 등장하는 쌍 뻐드렁니 길자의 딸과 사위였다.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2달이 되어 갑니다. 가톨릭에서도 49재를 지내고 있어 49재를 마친 후 차일피일 미루던 일을 오늘에야 사자암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동네 마트를 운영하며 힘겹게 저희 3남매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유일한 즐거움은 스님이 펴낸 책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의 '길자'라는 이름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쌍 뻐드렁니라 놀리셨지만 어머니의 첫사랑은 스님이셨다며 수줍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는 위암 수술 후 회복기에 사자암에 다녀갔었고 스님을 차마 만날 용기가 없어 먼발치에서 뒷모습만 보고 내려오셨답니다. 스님의 시(詩) '내 죽거든'은 어머님이 즐겨 외우는 어머니의 노래가 된 시입니다. 위암 수술한 곳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하실 것을 권유해도 어머님은 '내 죽거든'을 저희들에게 읽어달라며 시에 담긴 내용처럼 어머니의 사후(死後)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한동안 가슴이 짜릿짜릿 아파왔다. '길자 년'이 '길자 님'으로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다. 쌍 뻐드렁니가 떠난 그 길, 똥배꼽도 머잖아 떠나가겠지만.

쌍 뻐드렁니에게 던진 口業과 因果
인생 말미, 선근 인연으로 남았네

"갑오년(2014) 정월 초이튿날, 사자암의 대웅전 불전함에는 하얀 편지봉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수줍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용주님, 향봉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소꿉장난 시절의 이용주로 부르고 싶네요. 유년시절부터 할머니 나이에 이르기까지 좋은 짝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온, 차마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스님의 글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초등학교 시절의 같은 반 친구입니다. 백 번, 천 번쯤 용기를 내어 찾아왔으나 먼발치서 스님을 봤을 뿐,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만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염화미소가 가리킨 바는 없다



지안 스님의 〈선화禪話의 향기〉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연꽃을 드니 빙그레 웃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 있었던 일화에서 나온 말 중 염화미소(拈花微笑)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부처님이 모여 있는 대중 앞에서 설법을 하시려다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연꽃을 한 송이 들어 보이셨다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던 대중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유독 가섭이 홀로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섭의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내게 바른 법을 꿰뚫어 보는 눈, 열반의 현묘한 마음, 겉모습을 벗어난 진실한 모습, 미묘한 법문이 있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교설 밖으로 별도로 전하니 이것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吾有正法眼藏 涅槃妙心 實相無相 微妙法門 不立文字 敎外別傳 付囑摩訶 訶迦葉)

이 말은 경전 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종(禪宗)의 사서(史書)인 〈연등회요(聯燈會要)〉 1권에 수록되어 있다. 물론 경전의 이름을 띠고 있는 문헌에도 나오는 곳이 한 곳 있다. 〈대범천왕문불결의경〉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초회부촉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범천왕문불결의경〉은 중국에서 찬술된 경으로 역자와 번역한 때가 밝혀져 있지 않다.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여 의심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경명이지만 내용면에서 중국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선종사서를 대표하는 〈경덕전등록〉이 나온 후인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이다. 그 이유로는 선종사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덕전등록〉 이전에는 염화미소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 또한 정법안장이나 열반묘심이라는 말도 〈전등록〉에서 처음 쓰인 말이다. 이런 점에서 〈대범천왕문불결의경〉을 〈전등록〉 이후에 만들어진 위경(僞經)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를 〈전등록〉 이후에 나온 선종사서나 어록 등에 자주 소개하면서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 '곽시쌍부(槨示雙趺)'와 함께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하여 이를 선(禪)의 기원으로, 조사선(祖師禪)에서 애용하는 화두(話頭)를 삼아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는 선의 기치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공안으로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선종에서는 전법의 상징이 되는 조사법통(祖師法統)의 근거로 삼아 왔다.

부처님이 꽃을 든 이유를 가섭은 무언가 알아차렸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이 염화미소 이야기는 이른바 이심전심(以心傳心)을 상징하는 설화다.

그러나 이심전심을 근본으로 하는 선종의 본분도리(本分道理)에 있어서는 법을 전하고 받고 한다는 말마저 부정해 버린다. 사실 선의 근본 종지에 입각해서 볼 때는 '염화미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간화선의 완성자로 평가받는 대혜종고(大慧宗 p 1089~1163)는 "만약에 심법을 전했다고 한다면 세상일이 삼실처럼 얽혀 복잡해질 것이다"고 하였다.(若言付心法 天下事如麻)

"부처님이 연꽃을 든 것과 가섭이 빙그레 웃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이나 인식의 도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부처님이 심법을 전하고 가섭이 받았다거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심오하고 불가사의하게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분별하면 삼실처럼 얽혀 복잡한 조작이 일어나 염화미소의 진정한 참뜻을 왜곡하게 할 뿐이다."

〈연등회요〉에 나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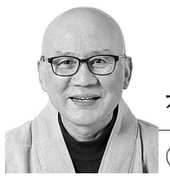
또 다른 어록에는 "이 일이 만약 말로써 설명된다면 대장경 전체에 설해진 부처님 말씀이 있지 않은가? 어찌 반드시 꽃을 들어 보이고 빙그레 웃는 염화미소로써 정법안장을 전하겠는가? 그대가 바로 알려면 입을 닫고 그 자리에서 알아차려야지 앞뒤로 요모조모 생각을 하지 말라. 머뭇거리며 분별하는 순간 귀신 소굴에 떨어질 것"이라 한다.

〈연등회요〉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염화미소는 밥알에 붙은 모래와 같고 달마가 전했다는 마음은 이마에 꽂힌 화살과 같다."(拈花微笑 飯裏着沙 少室傳心 腦門中箭)

이처럼 공안을 처리하는 조사선의 관점에서는 염화미소가 가리키는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이다. 인식상의 착각을 활용하여 모든 관념을 뽑아내는 철거도구와 같다는 것이다.

어느 곳에도 머물지 말라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① 욕망에 따른 고통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믿음이며, 의지하는 것이며,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삶은 모두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몸(육신)과 추구하는 행복, 우리들이 일궈낸 모든 창조물들을 비롯하여 산과 강, 지구, 태양, 우주의 별들도 저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모두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살려고 먹는가 먹으려고 사는가 하는 티끌 수와 같은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존재는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근본(根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줄기만을 알고 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근본이고 뿌리인가?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하는 본성(本性), 본심(本心)인 이 마음이 근본입니다. 이 마음은 허공과 그 나이가 같아서 설령 육도(六道)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각양각색의 형체로 태어나도, 그 마음만은 결코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정(妄情)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지어 그 과보(果報)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이 본심을 벗어난 티끌 같은 의심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미혹한 망념의 과보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들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오래 보전하려고 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인하여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무너지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자 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스스로 있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스스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무너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취하고 버리려는 우리들의 욕망은 충족될 수 없으며,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애착이 큰 우리들의 육신이 외부의 충격이나 질병으로 인해 느끼는 아픔의 통증은, 육신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통증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아픔의 고통이 싫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됨을 구하는 이는 구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체가 한마음이므로 실로 구할 것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취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도 버리지 않으며, 깨끗함과 더러움, 선과 악 등의 분별망념의 일체 이분법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바로 알아서,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으면 고통과 의심, 생과 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153억 년 전 하나의 티끌이 빅뱅한 후, 점점 팽창하여 지금의 우주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별과 태양 모든 사물들은 팽창하고 늘어난 티끌이 쌓이고 늘어난 모양인 것입니다. 티끌이 모여 쌓이면 생긴 것이고 쌓인 것이 흩어지면 멸한 것으로, 이것은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아니고 티끌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작용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티끌의 작용에 대해서 무엇이 생긴 것이다 멸한 것이다 또는 있다 없다, 때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티끌과 같은 분별을 일으키는 원인은 작용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謹賀新年

佛紀 2561年 丁酉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능가경)

福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TEL 02)444-4321, 7215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 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천년고찰 봉원사
회 장 석선암
보유자 김구해
부회장 이기봉
총 무 조현성
교 무 김태호
재 무 조효광
사 회 이석천
사무장 엄혜담
봉원사 대중일동
관음회 화엄회 합창단 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도량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주지 대오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Tel 02-381-7970~1 / Fax 02-381-7329
www.heungguksa.or.kr
템플스테이문의 : 02-381-7980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 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 466-6055